

사람이 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0~21절]

* 달란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1달란트= 6천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5달란트 = 100년 치 연봉 / 2달란트 =40년 치 연봉 / 1달란트=20년 치 연봉

* 주인에 대한 이해

당시 주인은 귀족 혹은 지주 즉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땅을 관리하는 소작농에게 40%의 소작료를 받았습시다.

* 종에 대한 이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노예였습시다.

당시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안일이나 농사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론)

☞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Q.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1)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라고 말합니다.

2) 이사야 65장 17~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본문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Q.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1)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바깥 어둠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

☞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

①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2달란트,1달란트를 각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Q. 100년 혹은 20년 치 연봉을 맡은 종은 그 돈이 부담이었을까요? 큰 기회였을까요?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②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달란트를 남깁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사에 도전을 합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두려움도 극복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 잘 듣는 종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나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③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사랑의 결산을 합니다.

1)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고 그만큼 남긴 두 종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남긴 돈과 그 남긴 것, **도전**) 을 칭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만달란트 빛진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주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에게 기쁨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종들은 평소에 주인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2) 1달란트 받은 종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식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괜히 장사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두려웠고, 원금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저 종답게만 생각했습니다.

④ 주인의 마음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두려워하기만 했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주었고, 내 생명의 씨앗을 너에게 주어

내가 가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씨앗을 심었는데

너는 나를 오해했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신 주인은

두려움의 종이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두려움에 종 되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되면 됩니다.

신앙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모험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 주님이 생각하시는 일

주님의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